

사랑의 미래- 상처, 치유, 반복

사랑,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세상에서 제일 슬픈 구절을

이 나이에 무슨 사랑?

이 나이에 아직도 사랑?

하지만 사랑이 나이를 못 알아보는구나

겁도 없이 나를 물어뜯는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인다

열 손가락에 불붙여

사랑의 눈과 코를 더듬는다

사랑을 갈비처럼 뜯어먹는다

모든 사랑에는 미래가 없다

그래서 숨 막히고

그래서 아픔답고 슬픈

사랑,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은 무죄!

- 문정희, 「오늘 밤 나는 쓸 수 있다- 네루다 풍
으로」

1 . 상처

사랑은 차이에 대한 긍정입니다. 만약 완전히 동일한 속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삶을 슬픔과 우울로 기억하도록 해주는 사람, 그래서 기쁨 자체로 느껴지는 사람, 바로 그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통해서만 우리는 우울하고 슬픈 과거가 아니라, 쾌활하고 기쁜 미래를 꿈꿀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나와 다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결국 사랑은 기쁨을 가져다주는 차이를 차이로서 긍정하며, 성급하게 차이를 일종의 동일성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차이가 사라질 때, 사랑은 그와 동시에 허망하게 날아가게 됩니다. 차이의 긍정, 이것은 바로 상대방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다시 말해 자유롭게 해주겠다는 의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정치경제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에 대한 자만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의 파국은 최종적으로 차이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변형시킬 수 없었던 우리 자신의 미숙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외적인 원인으로 치부할 수 없는 법입니다. 사랑은 나의 기쁨을 부여잡으려는 노력이며, 따라서 자신에 대한 사랑으로 귀결되기 때문이지요. 결국 사랑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 자신의 부주의함과 미성숙으로 마음속에 어렵게 찾아든 기쁨을 지키지 못했다는 데 있을 겁니다. 이것은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변절이자 배신이기 때문이지요. 이것에 비해 상대방이 사랑을 배신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비극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발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사랑이 찾아왔던 것처럼, 언제든지 상대방은 나와 지속적인 마주침을 거부하고 떠날 수 있으니까 말이지요.

바디우의 말처럼 사랑은 '하나'로 환원할 수 없는 '둘'의 관계입니다. 우리에게서 기쁨을 얻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언제든지 우리를 떠날 수 있으며, 나아가 떠나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을 슬픔으로 느낀다면, 그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조금씩 시들어갈 테니까 말이지요. 지금까지 같이 있어주었다는 것만으로 행복을 느껴야만 할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제 그에게서만 얻을 수 있던 기쁨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으니까 말이지요. 이 경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슬픔을 억누르고 상대방을 웃으면서 송별하는 일일 겁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것이 이별을 고하는 상대방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숙하지 못한 상대방은 이런 쓰디쓴 송별의 의미마저도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유안진 시인이 이별 앞에서 느꼈던 것도 분노도 바로 이것 때문이었지요.

가벼운 발길로 몇 걸음 옮기다가 돌아서더니
나른한 음성으로 한다는 말이
다달이 한두 번씩은 어렵겠지만
라디오FM에서 가끔은 맘에 드는 음악을 들어보게 되듯이
마음 내킬 때는 서로가 마땅한 때를 골라
바람도 쐬듯 그렇게 바람소리 같더라도
사소한 소식이라도
아름 아름으로라도 건네 주고 건네 받자고
자잘구레한 부탁이라고 윙크까지 곁들이고는
차에 올라타더니 다시 내다보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고쳐서는 혹시
타다 남은 심지에
파란 불꽃 다시 켜질지 모르지 않느냐다

하염없이 하염없이 굶은비만 내리는 하늘에다 무슨 고함이라도 내지르고 싶었다
-유안진, 「포스트모던한 이별식」

이별을 앞두고 상대방은 이제 ‘둘’의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마치 오래된 지인처럼, 연

락을 주고받자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사랑이 싹트기 이전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요. 이것은 사실 그 사이에 이루어졌던 모든 '둘'의 관계를 백지화하자는 이야기에 다름 아닙니다. 내가 내민 손을 잡아주었던 것도 그 사람이듯이, 손을 빼는 것도 그 사람입니다. 사실 우리는 잠시 내게 깃들었던 파랑새에게 고마움을 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당장 이제 우리는 슬픔에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기쁨을 주었던 상대방이 부재하고 있다는 생각이 당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할 테니까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은 마치 무너져버린 바닷가 모래성처럼 조금씩 무디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유안진 시인의 경우 떠나는 사람은 매우 잔인한 사람입니다. 이별을 고하는 것까지는 그의 자유이니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앞으로도 좋은 친구로 남자는 이야기는 정말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의 소식을 듣거나 만날 때 실연의 상처는 다시 도질 테니까 말입니다. 더군다나 상대방은 언제든지 다시 "타다 남은 심지에 파란 불꽃 다시 켜질" 수도 있다고 희망 고문을 자행하기까지 합니다. 당연히 이제 실연의 슬픔은 증오로 바뀌게 되겠지요. 상대방에 대한 증오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하늘에다 무슨 고향이라도 내지르고 싶을" 정도로 말이지요. 지금 시인은 떠나는 연인에 대해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에만 사랑의 감정도 극복될 수 있을 테니까 말이지요. 스피노자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정념은 그것과 반대되는 정념, 그리고 억제되어야 할 정념보다 더 강한 정념에 의하지 않고는 억제될 수도 없고 제거될 수도 없다.-□에티카(Ethica)□IVP7

사랑의 감정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떠나려고 할 때 슬픔의 감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실연한 사람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슬픔의 정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럴 때 증오의 감정은 슬픔의 감정을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떠나는 연인에게 모든 분노를 폭발하는 것, 이것은 실연한 사람이 그만큼 건강하다는 징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증오의

감정에 의지하고 있으니까 말이지요. 사랑이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타자와 함께 하려는 정념이라면, 증오는 자신에게 슬픔을 주는 타자를 거부하는 정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하늘에다 무슨 고향이라도 내지르고 싶었던” 유안진 시인은 매우 건강한 여성이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시인에게는 이제 남으로 돌아서면서 무심하게 던진 연인의 이야기가 독이 아니라 약이 되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시인에게 증오의 감정이 사랑의 감정을 압도할 정도로 강할 수 있을까요? 불행히도 그럴 수는 없을 겁니다. 여기서의 증오와 분노의 감정은 그만큼 시인이 떠나려는 연인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일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증오의 감정은 오히려 타인의 부재로부터 유래하는 슬픔의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사랑의 감정을 강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실연한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로 남게 될 것입니다. 상처를 긁어서 덧나게 하면, 아주 강한 흉터가 남게 되는 법입니다. 결국 분노와 증오의 감정에 이르지 말고 슬픔의 감정에 머무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보일 듯 말 듯 아름답고 작은 상처 하나만 남을 수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했나 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보다는 결말에서 더 많은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2 . 치유

실연한 사람은 자신의 슬픔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쉽게 극복되지 않는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별의 슬픔을 마치 고행자처럼 영원히 끌어안고 가려고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의식이 아닌 우리의 삶은 슬픔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습니다. 슬픔만을 가지고 살겠다고 아무리 다짐해도, 친구의 짓궂은 농담이나 유쾌한 영화는 우리에게 행복한 미소를 가져다주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그렇다고 자신을 너무 속물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이 충분히 건강하다는 징표니까 말이지요. 다행스러운 일 아닌가요. 깊이 베인 상처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아물듯이, 이별의 슬픔도 저절로 치유된다는 사실이 말이지요. 건강한 사람의 상처는 빨리 아

무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이 겪은 실연의 상처도 기억에서 빨리 아물 겁니다. 그래서 니체도 □도덕의 계보학(Zur Genealogie der Moral) □에서 말했던 겁니다.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자부심도, 현재도 있을 수 없다. 이런 저지 장치가 파손되거나 기능이 멈춘 인간은 소화불량 환자에 비교될 수 있다. (...) 이런 망각이 필요한 동물에게 망각이란 하나의 힘, 강건한 건강의 한 형식을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슬픈 이별에 직면해서 허우적거린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슬픔과 불행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니체(Friedrich Wilhelm Nietzsche, 1844 - 1900) 는 우리의 본질을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 The Will to Power) ”라고 불렀고, 스피노자는 “코나투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여기서는 스피노자의 이야기를 잠시 음미해보도록 하지요.

슬픔은 인간 활동 능력을 감소시키거나 방해한다. 즉 인간이 자신의 존재에 머물고자 하는 코나투스를 감소시키거나 방해한다. 그러므로 슬픔은 이런 노력에 반대된다. 그리고 슬픔을 느끼는 모든 인간이 노력하는 것은 슬픔을 제거하는 일이다. 그러나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것은 인간의 활동 능력의 그만큼 큰 부분에 대립한다. 그러므로 슬픔이 더크면 인간은 반대로 그만큼 활동 능력으로써 슬픔을 제거하려고 할 것이다.-□에티카(Ethica)□ⅢP37d

이별의 슬픔은 우리를 여러 면에서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일단 움직이는 것도 귀찮아지고, 감수성도 현저하게 약화됩니다. 심지어는 맛있게 먹던 음식들마저도 거부할 정도로 식욕이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행동이 중력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무거워지고, 하늘로 향하는 삶의 힘은 그만큼 약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일순간적인 일일 뿐입니다. 우리는 쾌활함, 기쁨, 행복을 지향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니까 말이지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숙명을 직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지향하

는 존재라는 사실과 관련됩니다. 사실 떠나간 사람을 사랑했던 것도 그와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었기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본질에 직면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다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는 자신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방안을 정리하고 책상에 향기로운 꽃을 놓아둡니다. 그리고 우울한 기분을 떨치고 다시 햇빛 가득한 거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스피노자의 말대로 의식적인 노력으로 치유의 시간은 그만큼 단축될 수도 있습니다. 실연과 슬픔을 응시하고 머물기보다는 차라리 슬픔을 가져다준 사람과 의식적으로 결별하고 기쁨을 주는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좋을 겁니다. 천혜은 시인처럼 말이지요. 시인은 당당하게 정공법을 선택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아물도록, 상처에 쓰디쓴 알코올을 분기를 주저하지 않으니까 말이지요.

네가 버리고 간 오후를 줍는다
버림받은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손톱으로 꺾꺾 눌러
구겨진 시간을 피고 길을 만든다
너는 가고 낡은 광주리에 담겨있던
네 그림자를 내다 팔기 시작한다
네 다리를 한 짝 내어주고
길 위에 심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산다
네 남은 다리 한 짝을 마저 주고
사과나무 어린 잎의 그늘을 산다
다리 없는 너를 안고 나무 아래 누워
네 차가운 배를 어루만지고
네 눈알을 만진다 팔과 머리통도...
길 밖에서는 해가 진다
저녁도, 밤도, 이곳에는 없다

네 눈을 팔아서 아침을 사고
따스했던 네 두 손을 팔아
사과나무 뿌리를 적실 이슬을 사고
-천혜은, 「너를 팔아 사과나무를 산다」

한때 시인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만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사람은 떠나간 것입니다. 당연히 기쁨과 행복은 순간적이거나 사라진 것이지요. 얼마 동안 그 사람의 부재는 시인을 어둠 속에 머물도록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머리 속에서 아직도 기쁨과 행복을 주었던 그 사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머리 속에 남아 있는 그 사람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을 말했던 것이지요. “버림받은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말입니다. 분명 시인의 말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녀의 말에는 슬픔을 넘어서 기쁨을 되찾으려는 당당한 의지도 드러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떠나간 사람의 몸을 조각조각 내어 팔면서 시인은 생기와 밝음, 그리고 희망을 구입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사과나무 한 그루”, “사과나무 여린 잎의 그늘”, “아침”, “사과나무 뿌리를 적실 이슬”을 산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기서 시인의 “사과나무”란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올지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명언, 즉 종교개혁가 루터(Martin Luther, 1483 - 1546) 가 한 말이지만 지금은 스피노자가 이야기했다고 하는 주장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긴 슬픔과 기쁨으로 점철되는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 어떻게 스피노자의 정신을 우회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3 . 반복

천혜은 시인은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구입한 “사과나무 한 그루”이나 “사과나무 여린

앞의 그늘"에는 사랑했던 사람의 "다리"의 흔적이, "아침"에는 그 사람의 맑은 "눈"의 흔적이, 그리고 "사과나무 뿌리를 적실 이슬"에는 그 사람의 따스했던 "두 손"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메를로-퐁티의 말처럼 기쁨의 흔적, 혹은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떠나간 사람의 흔적들은 마치 주름처럼 시인의 모든 것에 각인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 상처가 흉터를 남기는 것처럼 사랑의 상처도 지울 수 없는 흉터를 남기는 법이지요. 결국 처절하고 의식적인 노력에 의해서든, 아니면 자연적인 치유의 과정을 통해 실연의 슬픔을 이겼다고 할지라도, 과거의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실존에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기는 법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지울 수 없는 사랑의 상처를 흉터로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만약 다른 사람을 새롭게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흉터를 가진 채 사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들뢰즈도 말했던가요?

우리는 결코 (무로부터 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백지(tabular rasa)를 가지고 있지 않다. 우리는 중간(milieu)으로 미끄러져서 들어간다. 우리는 리듬들을 취하거나 아니면 리듬들을 부여하기도 한다.-□스피노자: 실천철학(Spinoza: Philosophie pratique)□

모든 사랑이 첫사랑의 반복, 하지만 차이를 지닌 반복인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첫사랑은 미래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닥칠 모든 사랑에 대한 지울 수 없는 원초적 기억, 혹은 트라우마로 작동하니까 말이지요. "그 사람과 같이 따뜻하네, " "그 사람보다 친절하네" 등등 앞으로 만날 모든 타자에 대한 정서는 처음으로 나에게 사랑의 기쁨을 가르쳐주었던 첫사랑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을 미치는 법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첫사랑과 완전히 유사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과 사랑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유사하다면, 우리는 비극을 예감할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정반대의 사람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는 힘들 겁니다. 그 중간 정도쯤의 사람, 다시 말해 비극을 피할 수 있는 희망을 안겨주지만 첫사랑 때의 기쁨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사람에게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싹틔우게 될 겁니다.

첫사랑에서 얻은 리듬을 새로운 사람에게 부가하고 새로 만난 사랑의 리듬을 받으면서, 우리의 사랑은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는 첫사랑의 상처가 비로소 아물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됩니다. 사랑의 상처는 사랑에 의해서만 치유될 수 있으니깐 말이지요. 그렇지만 첫사랑에 실패한 우리는 실패의 불길한 예감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 시작한 우리의 사랑은 걱정적이기보다는 항상 조심스러운 색깔을 띠게 되지요.

눈독들일 때 가장 아름답다

하마,

손을 타면

단숨에 굴러 떨어지고 마는

토란잎 위

물방울 하나.

-이인원, 「 사랑은, ...」

이인원의 시에는 첫사랑에 실패한 사람의 사랑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가 가장 극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한다고 해도 너무 깊이 상대방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첫사랑의 비극을 상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분명 상대방에게 자유를 주기보다는 소유하려고 했다는 깨달음과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 시인은 “손을 타면 단숨에 굴러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손을 탄다’는 것은 바로 소유욕을 상징하는 것일 겁니다. 그렇지만 첫사랑의 비극을 통해 시인은 사랑에 대해 훨씬 더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너무 강한 기쁨을 느낄 때,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은 사랑을 손으로 잡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겁니다.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순간, 자신에게서 사랑의 감정은 시들어지고 상대방도 자신의 곁을 떠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식욕을 억누르는 것과 같이 소유욕을 억누르려고 하면 할수록 상대방에 대한 사랑은 강해지기만 할 겁니다. 이제 시인은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준비를 갖춘 셈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강할수록 그는 그에게 자유를 주려고 할 정도로 성숙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랑은 첫사랑보다 은근하지만 더 강렬한 열정으로 타오르게 되는 법입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첫사랑 이후의 사랑은 “눈독 들이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소극적인 양상을 띠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내면의 열정은 첫사랑이 감히 범접하기 힘들 정도로 강렬한 것이지요. “손을 타면 단숨에 굴러 떨어지고 마는 토란잎 위의 물방울”이란 표현만큼 새롭게 시작된 사랑을 멋지게 묘사하는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첫사랑의 거친 열정과 비교할 수 없는 강도, 혹은 정중지동(靜中之動)의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미묘한 변화에도 섬세하게 반응하는 감수성을 상징하는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상태는 상대방이 자신을 언제든지 떠날 수도 있는 자유를 직감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눈독 들이는 사랑”은 무한한 인내와 기다림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성복 시인이 했던 말을 이해할 준비를 모두 갖춘 셈입니다.

‘사이’라는 것,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는 것. 너 또한 ‘사이’가 된다면 나를 만나리라.-□네
고통은 나뭇잎 하나 푸르게 하지 못한다□

사랑 앞에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자신을 바꾸려고 하지만, 우리는 단지 그것에만 충실할 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니깐요. 우리는 “나를 버리고 ‘사이’가 되어야” 합니다. ‘사이’는 물론 들뢰즈의 개념으로 표현하자면 ‘차이’이겠고, 바디우의 표현을 빌리자면 ‘둘’로도 표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이제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는 것, 나아가 그 사람이 나를 떠나는 것도 막을 수 없는 것을. 그래서 하염없이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상대방도 그렇게 자신을 바꿀 수 있을 때까지 말이지요. 물론 내가 내민 손을 상대방이 잡아주었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는 알고 있지요. 그는 언제든지 잡았던 손을 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이 순간을 하나의 영원인 것처럼 향유하게 됩니다. 이런 순간순간들을 매번 하나의 영원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은 마침내 그토록 고대하던 영원성과 불멸성을 획득하게 되겠지요. 밤늦은 시간 공원을 산책하는 늙은 노부부가 그토록 절실하게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셈입니다. 사랑은 과거도, 현재도, 그리고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현재'에 있지 않다면,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지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랑에서의 영원성은 시간적으로 사랑이 영원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여기서의 영원성은 과거이든 현재이든 앞으로 미래이든 사랑은 매 경우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오직 단독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비록 언젠가 이별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영원히' 남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